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변화*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김근식(경남대학교)

국문요약

이 글은 비교사회주의 시각에서 사회주의 체제전환론을 고찰하고 전환의 유형과 방식을 결정하는 초기 조건(initial conditions)과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에 대해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 체제전환의 가능성과 방식을 전망하고 이를 위한 조건과 과제를 도출한 것이다. 북이 체제전환에 나설 경우 아시아형 '점진적 체제개혁'과 정치체제의 근본 변화 없는 '당-국가 주도형' 체제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점진주의(gradualism)에서도 중국 베트남보다 '쿠바형'에 상대적인 친화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 특유의 초기 조건과 역사적 유제들을 고려하면 북한의 체제전환은 특정 유형이 아닌 고유한 '북한식'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 당장은 가장 북한적인 초기 조건으로서 수령제라는 대내 조건과 북미 남북관계라는 대외 조건이 체제전환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다.

주제어: 사회주의 체제전환, 점진주의와 급진주의, 초기 조건, 경로의존성, 수령제

* 이 논문은 2009년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I. 문제의 제기

북한은 과연 변화할 것인가? 북한은 과연 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북한은 붕괴할 것인가? 북한은 붕괴하고 있는가? 북한의 미래에 대한 논란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보수 진영의 북한 붕괴 대망론과 대북포용정책 이후 진보 진영의 북한 변화 기대론을 거치면서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점진적 변화의 긍정성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 불변론과 함께 도둑처럼 찾아올 북한 급변사태를 희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를 강조하는 진보 진영이든 북한의 붕괴를 희망하는 보수 진영이든 향후에 북한이 결국 변화해야 함을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점진적 방식이든 혹은 급진적 방식이든 북한의 현재 내재하고 있는 모순과 문제점은 당연히 개선되고 해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어떤 경로이든 북한은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굴곡을 거듭했던 북한의 개혁개방이 또 다시 불확실의 영역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이 변화해야 한다는 당위의 과제와 북한이 변화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의 한계를 목도하면서 과연 북한 체제가 이른바 사회주의 체제변화론의 관점에서 개혁개방의 전망이 가능한지 근본적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소련과 동구의 체제전환과 중국, 베트남의 체제개혁 경험이 과연 북한에게도 적용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과 환경하에서 또 불가능하다면 향후 북한의 체제변화는 어떤 방식과 경로로 진행될 것인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지금껏 우리 사회는 자신의 대북관과 이념에 따라 북한의 조그마한 변화까지도 대단한 것인양 과대평가하거나 매우 유의미한 변화마저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과소평가하는 극단적 양 편향을 보여 왔다. 북한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북한 지도부의 전략과 의지를 객관적 시각으로 인정하지 못한 채 진보와 보수 모두 자신의 ‘희망적 사고’에 맞춰 북한의 변화를 재단하고 평가하고 예견해 온 것이다. 2002년 7·1조치와 실리 사회주의 개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혹자는 드디어 북한이 시장화에 진입했다며 흥분하기도 했고 혹자는 당국의 계획경제 정상화 의도라며 개혁적 성격을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7·1 조치는 되돌릴 수 없는 시장화 정책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개혁 과정에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못한 단순한 구두선만도 아니었다. 이제 북한의 변화 실태를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전략으로 바라보고 이를 사회주의 체제전환론의 관점에서 분석 평가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전환을 동시에 고민하고 전망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일반론적인 사회주의 체제변화의 입장과 관점에서 북한의 변화 실태 및 가능성을 분석 전망하고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일별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즉 비교사회주의 시각으로 사회주의 체제전환 경로를 일반화하고 북한에 적용 가능성을 도출한 뒤, 체제전환의 각 유형과 북한과의 상호 조응성 여부를 살펴보고 향후 북한식 변화 전망을 도출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전환론 일반론을 고찰하고 체제전환 방식을 결정하는 초기 조건과 경로의존성에 대해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 방식을 전망하고 이를 위한 조건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사회주의 체제전환론의 개념: 체제전환, 체제개혁, 체제이행

일반적으로 체제변화(system change)라는 개념에는 이른바 ‘체제전환’

(transformation)과 ‘체제개혁’(reform)이 모두 포괄된다. 코르나이에 따르면 현실사회주의의 체제변화를 개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의 내용에서의 ‘깊이’(depth)와 속도에서의 ‘급진성’(radicalism)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내용에서의 부분성과 속도에서의 온건성일 경우 그것은 ‘개혁’(reform)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내용이 전면적이고 속도에서도 급진적일 경우 그것을 ‘혁명’(revolut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¹⁾

이때 개혁과 혁명을 구분하는 ‘깊이’(depth)의 기준에 대해 코르나이는 ‘분할되지 않은 공산당 권력독점과 지배적인 공식이데올로기’(block 1)와 ‘국가적 혹은 전인민적 소유형태’(block 2) 그리고 ‘관료적 조정기제의 지배’(block 3)를 제시하면서 적어도 블록 1, 2, 3 중 최소한 하나에서 근본적 변화가 존재할 때 이를 개혁으로 정의하고 있다.²⁾ 결국 코르나이가 설명하는 ‘체제개혁’에 대한 적극적 정의는 지배이데올로기와 권력독점, 소유형태, 조정기제 중 하나에 깊숙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그 변화의 방식이 적당하게 급진적이어야 하며(moderately radical), 완전한 체제이행 즉 탈사회주의로의 체제전환은 개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³⁾

여기서 코르나이의 ‘혁명’은 통칭 ‘체제전환’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즉 체제전환과정이란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질서형태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비해 ‘개혁’은 현재의 집권자와 그와 연합된 국가기구 내부 또는 외부의 그룹에 의해 추진되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1)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386-392.

2) 코르나이의 체제개혁에 대한 소극적 정의에 따르면 블록 1, 2, 3 중 어느 하나에서도 급진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면 개혁이라 할 수 없다.

3) 단 블록 1의 근본변화가 생기면 ‘루비콘 강’을 건넌 것으로서 사회주의 가족(family of socialist system)을 넘어 질적으로 전환된 것으로(qualitative leap) 코르나이는 보고 있다.

급진적이고 대규모적인 혁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전환을 통해서 점진적인 체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⁴⁾

이때 개혁과 체제전환 간의 관계는 국내외적 정치, 경제적 환경에 따라 그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위로부터의 개혁이 ‘체제 내적 변화’(change within the system)에 머물 수도 있고 체제개혁(system reform)을 거쳐 궁극적으로 ‘체제전환’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기존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적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유지된 채로 변화하는 것이 체제 내적 변화라면 기존의 체제적 특성 요인까지 변화하는 것을 체제개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⁵⁾

따라서 공산당독재, 중앙집권 명령경제체제, 이데올로기 독점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처럼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정치부문과 이데올로기부문에서 급격한 변화와 단절로 나아갈 때 이를 ‘체제전환’(transformation)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처럼 사회주의의 기본틀, 특히 정치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경제정책의 방향전환을 ‘체제개혁’(system reform)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체제전환과 체제개혁의 개념이 변화의 속도와 깊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면 정치부문과 경제부문의 상호 변화양상을 놓고도 우리는 이중전환과 단일전환이라는 구분을 할 수 있다. 즉 급진적인 체제전환의 경우 정치개혁과 동시에 혹은 정치개혁을 통해 근본적 경제개혁을 이행하는 이른바 ‘이중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면 체제개혁의 경우는 정치체제는 그대로 두고 혹은 같은 정치 지도부에 의해 경제체제만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단일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체제전환과 체제

4) 정형곤, 『체제전환의 경제학』 (서울: 청암미디어, 2001), pp. 21~27.

5) 예컨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인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계획명령경제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유지되는 한에서 일부 정책적 조정 기제만의 변화라면 그것은 체제내적 변화로 분류될 것이다.

개혁은 정치와 경제의 변화 차원에 따라 이중전환 방식과 단일변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⁶⁾

사회주의 체제변화의 경험을 보면 체제개혁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사실은 그 시작이 위로부터의 개혁방식과 경제부문의 변화로부터 출발하지만 장기적 차원에서는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써 결국 체제전환으로 연결되고 향후 정치체제까지를 포함한 근본적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바, 엄밀히 본다면 체제개혁 역시도 큰 틀에서는 한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대체되는 체제전환의 일련의 과정이자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의 체제개혁 방식은 그것이 체제내적 변화에 머물지 않고 계획경제 대신에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국영기업 대신 사유화 부문이 창출된다는 점에서 체제개혁을 거쳐 궁극적으로 체제전환으로 가는 하나의 유형으로 봐야 한다. 결국 사회주의 체제전환론은 그것이 급진적이고 이중적인 방식의 전환유형이든 아니면 점진적이고 단일적인 방식의 개혁유형이든 중국적으로 체제전환의 관점에서는 동일한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은 구체제에서 신체제로 이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해서 ‘체제이행’(transition)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공산당 정치체제와 공적소유의 계획명령경제 시스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적소유의 시장경제로 옮겨진다는 점에서 분명 사회주의 체제전환은 이행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도 사회주의 체제변화를 언급하면서 체제전환과 체제이행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행론이 한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옮겨감을 의미

6) 하상식, “경제체제 개혁과 정치적 변화: 북한의 개혁전망,” 『국제정치논총』, 37집 2호 (1997), p. 151. 이중전환과 단일전환의 유형 분류는 이무철, “조정기제의 변화와 국가의 역할,” 윤대규 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한울, 2008), pp. 182~184.

하고 전환론이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며 다차원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구사회주의의 급격한 체제변화는 정치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문화와 가치 및 신념의 변화까지 포괄하는 것이므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의 단순한 이행(transition)보다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이며 장기적인 ‘전환’(transformation)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⁷⁾

사회주의권 붕괴의 도미노 현상을 보였던 1990년대 동구라파의 체제 전환을 이른바 ‘이행학’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서구식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정착이라는 이행의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적 요건들만을 목적론적으로 강조하게 되고 실제 체제전환 국가들이 사유화 과정의 지체나 비민주적 정권의 등장으로 이행학으로부터의 이탈이 일반적이었던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⁸⁾ 오히려 체제전환론의 관점이 각 국가들의 조건과 환경의 차이를 감안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제도적 문화적 유제의 구속력에 유의하면서 차별적인 체제전환 과정과 정치 경제체제의 다양한 발전을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단순한 이행학의 접근보다는 보다 역동적인 체제전환론의 접근이 실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이 되고 바로 이 점에서도 필자는 체제이행보다는 체제전환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결국 사회주의 체제변화와 관련된 개념에서는 급진적인 체제전환 방식과 위로부터의 점진적인 체제개혁을 구분할 수 있고 이는 곧 이중전환과 단일전환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광의의 의미로 본다면 전환과 개

7) 정흥모, 『체제전환기의 동유럽 국가 연구: 1989년 혁명에서 체제전환으로』 (서울: 오름, 2001), pp. 194~201 ; Frank Bonker, Klaus Miller and Andreas Pickel, “Cross-Disciplinary Approaches to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Context and Agenda,” Frank Bonker et al. eds,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and the Social Science: Cross-Disciplinary Approache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2).

8) 최봉대, “사회주의 체제전환 방식의 비교연구,” 윤대규 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파주: 한울, 2008), pp. 14~16.

혁 모두 사회주의의 근본적 체제변화로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체제전환 일반론으로 포괄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에 따라 소련 동구의 급진적 체제전환의 경로와 중국, 베트남의 점진적 체제개혁의 방식 모두를 우리는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대표적인 두 유형으로 간주한다.

Ⅲ. 체제전환의 유형: 급진주의와 점진주의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이른바 급진주의(radicalism)와 점진주의(gradualism)로 대별될 수 있다.⁹⁾ 그리고 급진주의와 점진주의는 각각 소련동구 지역의 경험과 중국 베트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소동구형과 아시아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코르나이의 체제변화 개념에 따르면 급진주의는 ‘혁명적’ 변화 즉 변화의 내용과 깊이가 전면적이고 속도가 급진적인 방식이며 점진주의는 이른바 ‘체제개혁’의 방식에 해당된다. 전환 영역의 상호 관계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급진주의는 정치와 경제가 동시에 전환되는 ‘이중전환’의 경우이고 점진주의는 경제부문의 변화를 우선하는 ‘단일전환’의 경우가 된다. 체제변혁 동력의 형성과 작용방식에 따라 도식적으로 분류하면 지배 엘리트 주도의 ‘위로부터의 개혁’과 피지배대중에 의한 자생적인 ‘아래로부터의 개혁’ 그리고 외부의 정치경제적 압력이나 영향력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개혁’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 바,¹⁰⁾ 이에 따르면 급진주의는 대개의 경우 아

9) 물론 체제전환 방식의 차별성에 따라 러시아형, 루마니아식의 동부유럽형, 폴란드 헝가리 등의 중부유럽형, 중국과 베트남의 중국형, 쿠바형으로 더 세분화 하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는 급진주의와 점진주의라는 유형분류로 대부분의 경우가 설명이 가능하다.

10) Ivan Szelenyi, "A Theory of Transitions," *Modern China*, Vol.34, No.1 (2008), pp. 167-169.

래로부터의 변화압력이 중요한 촉발요인이 되고 점진주의는 지배블록의 위로부터의 변화의지가 중요한 전환 계기가 되는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급진주의는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혁명적인 체제전환 과정을 관철시키는 방식이고 점진주의는 장기간에 걸쳐 경제영역에서부터 지속적인 체제전환 과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급진주의는 혁명적(revolutionary) 전환이고 점진주의는 진화적(evolutionary) 전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급진주의 유형은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으로서 정치와 경제가 동시에 이행되는 이중전환이고 상당수의 경우는 대중들의 자발적인 변화요구로부터 촉발된 아래로부터의 혁명적 변화에 해당한다.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혁명적 체제전환으로서 급진주의는 그래서 ‘충격요법’(shock therapy) 혹은 ‘빅뱅’(big bang)으로 개념화되기도 한다.

급진주의는 대부분 체제전환 국면에서 지배엘리트의 내적 분파 형성과 저항세력과의 동학이 정치와 경제 양 차원에서 혁명적 변화를 수반하는 방식이었다. 즉 지배계급 내부에 개혁파와 보수파가 분화되면서 권력 투쟁을 하게 되거나 지배블록 바깥에 존재했던 반체제 엘리트와의 경쟁과 타협에 의해 체제전환에 나서거나 혹은 대중봉기에 의해 지배계급이 급속도로 해체 혹은 분열하게 되면서 급격한 체제전환이 시작되는 경우 등이었다. 이에 따른다면 급진주의에 해당되는 공통의 체제전환 경로에서도 지배엘리트의 분파와 정치적 갈등 양상에 따라 분열과 대립으로 혁명적 전환을 맞이한 소련형과 대중봉기로 기득권 세력이 제거되는 루마니아식의 동부유럽형 그리고 지배엘리트와 반체제 엘리트의 정치적 타협으로 체제전환이 시작되는 폴란드, 헝가리 등의 중부유럽형으로 차별화되기도 한다.¹¹⁾ 더욱 자세히 전환과정을 들여다보면 물론 그 안에서도

11) 급진주의 국가들의 다양한 체제변화 특히 정치적 탈사회주의 과정에 대해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면서 다양성과 차별성을 보이기도 한다.¹²⁾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급진주의는 조직화된 저항 세력이 등장하는 사회적 동원의 단계, 공산주의 권력소유자와 저항세력 간의 대결 혹은 타협의 단계, 공산당이 자발적으로 혹은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국가와 사회에서의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포기한 과도정부 단계, 자유선거가 실시되고 새 정부가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탈공산화 단계¹³⁾ 등을 거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점진주의는 중국과 베트남의 체제전환 유형으로서 정치의 공산당 지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해가는 ‘단일전환’이고 대부분의 경우 지배 엘리트의 정책적 의지에 의해 점진적인 체제개혁(incremental reform)을 수행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에 해당된다. 즉 일당지배를 유지하면서 계획과 시장의 공존적 결합을 모색하는 특징으로서,¹⁴⁾ 기존 지배체제의 정치적 안정 유지를 최우선적 전제로 하여 당내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의 노선대립을 타협적으로 해소하면서 개혁파 지배엘리트 주도로 점진적인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구체제의 해체라는 방식을 거치지 않고도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비동시적이고 불균등한 결합적’ 이행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다.¹⁶⁾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서울: 해남, 2004), pp. 78~91 참조.

12)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도 같은 중부유럽형임에도 불구하고 탈사회주의 체제 전환 과정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진승권, 『동유럽 탈사회주의 체제 개혁의 정치경제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p. 339~342.

13) 전태국,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독일통일과 동구변혁』 (서울: 한울, 1998), pp. 73~74.

14) A.G. Walder ed., *China's Transitional Econom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 1~2.

15) Sujian Guo, "Economic Transition in China and Vietnam: a Comparative Perspective," *Asian Profile*, Vol.32, No.5 (2004).

중국의 체제개혁은 계획을 배제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시장과 공존시키면서 이른바 ‘계획으로부터의 성장’을¹⁷⁾ 가능케 함으로써 점진주의의 이행을 성공시켰다. 맹목적이고 이상적인 하나의 모델에 집착하지 않고 개혁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이행기반을 튼튼하게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¹⁸⁾ 중국은 정치적 안정 위에 초기 농촌개혁의 성공과 잉여 노동력의 재배치를 통한 2차 산업의 발전 그리고 경제특구의 성공적 활용을 통한 점진적 개혁개방정책으로 요약되기도 한다.¹⁹⁾ 베트남 역시 베트남 공산당이 주도하는 ‘도이모이’ 정책에 의해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가족농 제도의 정착, 가격자유화와 재정 및 금융개혁, 국유기업 개혁과 사유화를 거쳐 본격적인 시장경제 제도로 이행하고 있다.²⁰⁾ 중국과 베트남이 공히 본격적인 체제개혁에 나설 수 있었던 데는 오랜 적대관계를 유지했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개혁의 우호적 대외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과 공산당 내부에서 개혁과 주도의 인적 교체가 이뤄짐으로써 경제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대내적 조건의 형성이 주요한 작용을 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중국, 베트남 유형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차이를 보이는 사례가 바로 쿠바형이다. 쿠바의 개혁모델도 정치적 일당지배를 유지하면서 경제부문에서의 점진적인 체제개혁을 진행한다는 점에서는 큰 틀의 점진주의

16) 이를 최봉대는 당-국가 주도형 체제전환론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최봉대, “사회주의 체제전환방식의 비교연구”, p. 31.

17) Naughton,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18) 중국의 체제전환에 대한 설명과 평가에 대해서는 中兼和津次 지음, 이일영·양문수 옮김, 『중국경제발전론』 (서울: 나남, 2001); 린이뚜 외 지음, 한동훈·이준엽 옮김,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 (서울: 백산서당, 2001) 참조.

19) 양운철, 『북한 경제체제 이행의 비교연구』 (파주: 한울, 2006), p. 227.

20) 김석진, 『중국 베트남 개혁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재검토』 (서울: 산업연구원, 2008), pp. 47-50.

로 분류될 수 있지만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개혁의 수준과 정도가 미흡하고 일관된 개혁이 아닌 ‘가다서다’식의 단속적 개혁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쿠바의 체제개혁은 시장의 요구와 동원적 정치 사이의 긴장관계를²¹⁾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만 개혁을 진행함으로써 경제개혁 과정이 오히려 국가의 통제역할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²²⁾ 쿠바가 중국, 베트남과 차별성을 보이는 배경에는 쿠바민주화법 등 미국의 봉쇄정책이 여전하다는 외적 조건과 반개혁적 성향의 최고지도자의 집권이 지속되고 있다는 내적 조건 등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체제전환의 요인과 유형의 상관관계: 초기 조건과 경로의존성

그럼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요인은 무엇일까? 급진적 전환이든 점진적 개혁이든 본격적인 체제전환이 시작되는 일반론적인 요인을 추출해내고 동시에 급진주의 모델과 점진주의 모델을 가능케 하는 각각의 유형적 요인들을 분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론적 관심사인 북한은 아직 체제전환의 기미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정확한 전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북이 체제전환에 나설 수 있는 방아쇠 역할의 시

21) Marifeli Perez-Stable, “Caught in a Contradiction: Cuban Socialism between Mobilization and Normalization,” *Comparative Politics* vol.32, no.1 (October, 1999).

22) 정영태 외,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91~92 ; Javier Corrales, “The Gatekeeper State: Limited Economic Reforms and Regime Survival in Cuba, 1989~2002,”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39, No.2 (June, 2004), pp. 35~43.

작요인을 확인해봐야 하고 이후 급진주의로 갈지 혹은 점진주의로 갈지 전환과정의 경로를 예측케 하는 유형적 요인들도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체제전환의 요인을 분석하고 그 요인들이 북한에 해당되는지를 잘 따져보아야만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의 가능성과 필요조건들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체제전환의 요인과 관련해서 필자는 이른바 초기 조건과 경로의존성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초기 조건(initial conditions)이란 체제전환국의 정책당국에게 주어지는 제반의 조건으로서 자연환경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 및 과거로부터 이어받은 역사적 유산, 초기 발전수준과 정치적 국제적 환경 등을 말한다.²³⁾ 월드뱅크는 경제적 체제전환의 초기 조건으로 경제 구조의 차원, 경제 왜곡의 차원, 제도 차원의 세 가지 범주를 나누기도 했다.²⁴⁾

결국 체제전환국의 처지와 환경이 곧 초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초기 조건의 차이에 따라 이후 체제전환 과정과 결과들이 상이하게 나타나게 됨을 이른바 ‘경로의존성’(path-dependence)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경로의존성은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이 공통적으로 급진적인 혁명적 전환 방식을 택했지만 실제 진행과정과 전환의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착목하여 사회주의 체제의 제도적·문화적 유제의 현재적 구속으로 개별 전환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²⁵⁾ 경로의존성은 체제전환국의 서로 다른 다양한 결과가

23) 양문수, “체제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성과,” 윤대규 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p. 199.

24) World Bank, *Transition-The First Ten Years: Analysis and Lessons for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2) 참조.

25) David Stark, “Path Dependence and Privatization Strategies in East Central Europe,”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Vol.6, No.1 (1992).

사실 체제전환의 초기 조건과 전환과정의 개별 조건의 상이함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예컨대 동일한 중부유럽형 체제전환국이지만 지배엘리트의 행태와 관련해서 헝가리는 선거참여형, 폴란드는 타협형, 체코는 행복형의 다른 경로를 보이는 것이나 국유기업 사유화 전략에서 헝가리의 분권화된 재조직, 폴란드의 종업원 지주제, 체코의 바우처 경매식의 다양한 결과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는 것이 바로 초기 조건과 경로의존성인 것이다. 정치적 초기 조건의 상이함에 따라 동독 체코는 민주적 자본주의, 소련, 루마니아 등은 범죄자본주의, 폴란드, 헝가리 등은 정치적 자본주의 등 다양한 정치 체제 전환을 결과한 것도 마찬가지다.²⁶⁾ 경제개혁도 초기 조건의 상이함이 결과의 차이를 낳기도 한다. 예컨대 중국의 점진적 체제전환이 성공했던 데에는 농업부문의 풍부한 과잉노동력, 저개발의 산업구조, 지방 분권화 정책, 홍콩과 이웃하고 대만과 동남아에 화교자본의 존재,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로 ‘실험 후 확산’ 정책이 가능했던 점 등을 들 수 있고 이는 중국이 갖고 있는 유리한 초기 조건들이었다.²⁷⁾

사회주의 체제원리와 대비되는 자본주의 체제이행을 전제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과정을 비교정치 시각으로 단순화시켜 분석하는 이행학의 입장은 현실의 전환과정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실제 전환국가들이 보여주는 비서구적 이행경로의 생성 기제를 차분히

26)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p. 90. 동유럽의 체제전환 결과 서구식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카리아는 비자유민주주의 (illiberal democracy)라는 개념으로 특성화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서경교, “동유럽의 민주화: 비자유민주주의의 확산?,” 이상환·김웅진 외, 『동유럽의 민주화』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 Fareed Zakaria, *The Future of Freedom: Illiberal Democracy at Home and Abroa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3) 참조.

27) 양문수, “체제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성과,” pp. 208~210.

분석함으로써 엘리트의 정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주의 시기 혹은 그 이전의 체제 특성과 ‘역사적 유제’들 및 국내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비교방식이어야 한다. 즉 경로의존적 체제전환은 초기 조건과 진행과정의 차이로 인해 체제전환의 결과가 상이하다는 전제하에 개별 체제전환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적극 고려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²⁸⁾ 결국 각각의 체제전환 방식이 그것을 야기하는 각각의 초기 조건들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 일정한 제약하의 경로의존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경로의존적 체제전환론은 반드시 하나만의 이상적 모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개방성과 다양성을 전제하고 있다. 경로의존성에 의해 나라들 간의 차별적인 체제전환 과정과 체제전환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체제전환의 요인으로 코르나이는 4가지를 들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의 축적, 대중적 불만, 지배집단의 자신감 상실, 외부의 변화사례들의 영향 등이 그것이다.²⁹⁾ 즉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누적되면서 대중의 불만이 확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지배집단이 정치적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외부로부터 체제변화의 사례들이 파급력을 갖고 영향을 미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그 체제는 체제전환이 촉발된다고 봐야 한다. 즉 체제전환 과정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이다. 체제전환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으로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체제정당성의 상실과 체제전환을 압박하는 국제정치역학 관계 그리고 체제전환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 및 편익의 증대를 강조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³⁰⁾

28) 최봉대, “사회주의 체제전환방식의 비교 연구”, p. 18.

29)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p. 383~386.

30) 김갑식,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정치체제변화,” 윤대규 편, 『사회주의 체제전

그리고 체제전환 과정이 급진주의와 점진주의 혹은 각각의 전환유형으로 진행되는 것을 경로의존성으로 설명하는 데서도 대부분은 위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동구형의 급진적 이중전환 방식과 동아시아형의 점진적 단일전환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도 마찬가지로이다. 소련에 의해 이식된 사회주의였던 동구라파에 비해 아시아형이 대체로 상대적인 체제정당성을 유지하고 있고³¹⁾ 국제정치적 외부 요인 역시 동유럽의 경우는 소련의 쇠퇴로 인한 동유럽에 대한 포기선언³²⁾이 체제전환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³³⁾ 반면 아시아형은 외부의 압박에 굴복하기보다 이를 내부적인 체제통합에 활용하거나 대미관계 개선 이후에 체제전환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민들의 저항도 동유럽은 억압과 처벌의 두려움보다 체제전환으로 기대되는 정치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집단적 정치행동에 나선 반면 아시아형은 아직도 반체제 행동의 정치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다. 같은 사회주의라 하더라도 동유럽과 아시아의 역사적 유제와 조건이 상이하고 이로 인한 국내외적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은 체제전환의 유형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은 지배층의 대응이 주요한 체제전환의 요인을 형성하게 되는 바, 여기에는 경제적 위기 지속과 대중적 저항운동 등이 대내적 조건과 대외적인 국제정치역학 관계가 체제전환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각각의

환에 대한 비교연구』, p. 104.

31) 소련의 위성국가로서 사회주의 체제가 형성된 동구라파와 달리 중국 베트남 쿠바 등은 독자적인 민족해방투쟁과 혁명전쟁을 통해 자력으로 사회주의를 성취했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를 일정정도 확보할 수 있었다.

32) 이른바 시나트라 선언.

33) Ivan Szelenyi and Balazs Szelenyi, "Why Socialism Failed: Toward a Theory of System Breakdown-Causes of Disintegration of East Europe State Socialism," *Theory and Society*, Vol.23 (1994), p. 226.

체제전환은 결과적으로 정치적 지배엘리트들의 선택과 대응이 핵심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경제위기와 시장화 정도, 대중의 불만과 저항 정도, 외부의 압력과 영향 등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각국의 체제 전환은 지배엘리트와 대내외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체제전환 방식이 선택되는 셈이다.

체제전환의 요인과 유형과의 상관관계를 놓고 본다면 북한의 경우는 아직 체제전환이 개시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의 지속과 대중들의 불만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시장화와 조직적 저항운동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대외적 조건도 중국의 지원과 후견이 체제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대미 대남 관계가 오히려 체제전환을 압박하기보다 체제유지 및 체제통합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유럽의 급진주의적 체제전환은 물론이고 중국, 베트남의 점진적 체제전환도 아직 북에게는 압박하지 않고 있다. 수령제라는 독특한 유일지배의 정치체제가 강고한 탓에 지도부의 교체나 개혁파의 득세가 아직은 불가능하고 반체제적인 조직적 저항도 불가능하며 북미 남북관계가 체제전환을 강요하는 외적 조건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에게 체제전환은 생소하게 다가온다.

V. 북한의 체제전환: 가능성과 전망 및 함의

2007년 이후 북한의 이른바 ‘실리사회주의’와 7·1조치가 사실상 좌절되면서 북한의 체제전환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평가되고 있다.³⁴⁾

³⁴⁾ 7·1 조치의 후퇴와 시장억제 조치에 대해서는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파주: 한울, 2010) 참조.

7·1 조치를 필두로 시장화 개혁정책을 추진했던 박봉주 총리의 해임과정 역시 경제정책의 보수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³⁵⁾ 과연 북한의 현주소는 체제전환이 시작도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사회주의 체제전환론의 관점에서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체제전환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위기와 대중들의 정치적 불만이라는 대내적 요건이 개혁개방을 압박하거나 용이케 하는 대외적 요건과 결합하면서 정치엘리트들로 하여금 체제전환에 나서게 한다. 이를 놓고 본다면 체제전환의 가능성과 관련된 북한의 ‘초기 조건’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지만 정치엘리트들이 자신감을 상실하고 대중의 정치적 압력에 밀려 개혁개방을 수용해야 하는 정도는 아니다. 대외적 정세환경이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전환에 나서도록 압박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적대적 대외관계가 체제유지에 활용되고 있다. 경제난의 지속과 이로 인한 대중들의 불만은 쌓이고 있지만 개혁개방을 결심케 하는 정치적, 대외적 초기 조건이 북한에게는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급진주의 모델인 소동구형의 본격적 체제전환의 시작뿐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의 점진주의 체제전환의 가능성도 아직은 북에게 열려 있지 못하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개혁 결단을 가능케 했던 초기 조건으로 체제위기의 강도, 지도부의 교체, 공산당의 통치역량, 대외관계 개선, 민족통일 문제 등을 든다면 북한의 경우는 이와 관련된 정치적·대외적 초기 조건이 과거 중국 베트남에 비해 개혁전략을 선택하기 훨씬 어려운 조건이다.³⁶⁾ 즉 지도부의 교체라는 조건은 권력승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35) 박봉주 총리의 부침과 경제개혁 조치 후퇴에 대해서는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 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경남대학교 박사논문, 2009) 참조.

36) 김석진, “중국 베트남 개혁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재검토,” pp. 52-72.

개혁파의 형성과 득세를 의미하는 것인 바, 이는 아직도 북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대외관계 역시 북미 적대관계가 지속됨으로써 스스로 개혁개방을 결심하기에 불리한 조건이며 민족통일 문제 역시 흡수통일 가능성을 우려해 과감한 개혁개방을 주저하게 하고 있다. 특히 남한의 존재라는 분단구조의 영향력과 지도부의 인적·이념적 연속성과 강고성은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북이 체제전환을 시작하기 힘든 결정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체제전환에 당장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북한의 체제전환은 어떤 유형과 경로로 예측할 수 있을까? 과거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경험은 경제에서 계획의 비중이 높거나 그것의 중앙집중도가 높을수록 빅뱅식의 이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행과정에서 경제의 혼란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경제구조 측면을 단순화하면 북한은 소련식의 고도로 집중화된 계획경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빅뱅식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급진주의와 점진주의를 정책결정자의 선택의 영역으로 본다면 성과와 혼란방지의 측면에서 지도자는 점진주의를 선택할 것이다.³⁷⁾ 주체 사회주의라는 역사적 유제, 수령제와 자력갱생의 자립경제노선이라는 제도적 제약, 대중의 조직적 저항은 없지만 급격한 개혁개방이 체제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즉 황색 바람론, 미국의 대북 체제전환 시도라는 안보 위협과 분단체제하 남북관계라는 대외적 요인들이 결국은 김정일로 하여금 신속하고 급격한 소련동구형의 체제전환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다. 즉 김정일 위원장이 결국 개혁개방의 방식을 결심하고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그의 입장에서는 정치체제의 훼손 없이 경제개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형의 점진주의가 매력적일 것이다.

37) 이석,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 54.

이때 김정일 위원장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사적 유제와 국내외 요인이라는 초기 조건을 들 수 있고 바로 이들 조건에 의해 중국식의 점진주의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개혁개방 이후 체제전환의 유형과 방식은 ‘경로의존성’을 갖고 진행될 것이다. 우선 북이 안고 있는 경제구조의 초기 조건들은 소련형의 고도의 국유화와 중공업 위주의 과잉 산업화이기 때문에 중국형의 초기 조건과는 상이하다. 산업화에 투입할 농업 잉여인력이 부족한 점 역시 중국식의 조건과 다르고 이는 곧 농업 개혁을 지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초기 조건의 차이로 농업이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이고 상대적으로 공업부문 종사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식 개혁의 채택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³⁸⁾ 북한이 중국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체제전환이 통일과 연결되기 쉽고 한국의 존재 때문에 전환의 경로가 다를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³⁹⁾ 정치적 의지는 중국식이지만 조건과 현실은 다르다는 딜레마에 놓여있는 것이다.

오히려 초기 조건을 고려하면 분절적 개혁, 국제환경의 불안정성, 정치체제의 불투명성과 후계문제 등에서 북한은 쿠바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⁴⁰⁾ 지도부의 교체 없이 개혁과 정체를 반복하는 것도 유사하다. 그러나 쿠바와 비교해도 북한의 초기 조건은 더 열악하다. 쿠바의 초기 조건은 천혜의 관광자원, 미국거주 이주민의 존재, 상대적으로 과감한 농업

38) 양운철, 『북한의 경제체제 이행의 비교연구』, p. 233.

39) John Mcmillan, “What Can North Korea Learn from China’s Market Reform,” in Doowon Lee ed., *The System Transformation of Transition Economies: Europe, Asia and North Kore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7). 초기 조건에서 북한은 중국식의 점진적 체제전환도 무리고 오히려 북한 붕괴를 감안한 체제전환과 통일의 결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박제훈, “북한경제의 개혁과 체제전환: 이행경제학적 접근,” 『비교경제연구』, 16권 1호, pp. 25~28.

40) 정영태 외,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pp. 6~8.

부문 개혁과 대외 외자 유치 정책 그리고 광범위한 자영업 허용 등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점이 북한과 다르다. 결정적으로 남북분단이라는 조건은 쿠바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북한만의 상황이다.

결국 북한의 체제전환은 소련 동구와 구별되는 아시아형 ‘점진적 체제 개혁’에 더 친화성이 있고 정치체제의 근본 변화 없는 ‘당-국가 주도형’ 체제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점진주의에서도 중국 베트남 보다 ‘쿠바형’에 상대적인 친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초기 조건의 상이함과 주체 사회주의 특유의 역사적 유제들을 고려하면 북한의 체제전환은 특정 유형이 아닌 북한만의 고유한 초기 조건에 맞는 전환정책과 전환유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⁴¹⁾

결국 체제전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지배엘리트들의 정치적 결정 여부이다. 그것이 지배블록 내의 분파형성과 내부 갈등이든 혹은 제도권 밖의 반체제적 엘리트와의 갈등과 타협이든 아니면 대중들의 저항에 밀린 정치적 결단이든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은 불가불 지배엘리트가 당시 조성된 대내외적 요인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반체제 저항운동이나 비공식 경제 활성화 등의 대내적 요인이 정치 엘리트의 분파와 갈등과 순응을 결과하기도 하고 또는 대외관계의 규정력에 의해 엘리트의 정치적 결정이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체제전환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다면 북한은 우선 경제적 위기와 대중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저항운동이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지배엘리트 내부에 개혁파가 형성되고 분파 간 대결이나 노선투쟁의 가능성도 많지 않다. 시장이 확산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배엘리트는 반시장적인 성향으로 통일되어 있다. 오히려 지배 엘리트는 수령을 중심으로 정치적 대결이나 갈등 없이

41) 양문수, “체제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성과,” pp. 220~221.

일사불란한 유일지도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높은 내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오랫동안 정착되고 제도화된 '수령제'의 존재로 인해 대내적 조건에 의한 지배엘리트의 내부동학과 정치적 결단이 강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다.

대외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북미관계가 평화적 선린관계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고 이는 곧 북한에게 외부 위협이라는 안보상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전환의 결심을 머뭇거리게 하는 외적 조건이 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통일이라는 구심력의 작동 역시 체제전환을 늦추고 개혁개방을 주저하게 하는 중요한 외적 환경이다. 오히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지금도 북에게 체제전환에 역기능을 하는 대외적 조건이 되고 있다.

결국 북한에게 가장 북한적인 초기 조건은 바로 수령제라는 대내 조건과 북미 남북관계라는 대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이 물꼬를 트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식 초기 조건이자 체제전환을 가로막는 제약이기도 한 수령제와 대외환경을 조금씩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수령제의 변화는 적대적 대외관계의 해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미국과 남한으로부터 외부적 위협이 해소되면 장기적으로 그것은 북한 주민들과 엘리트들을 지배하고 있는 '피포위' 의식의 약화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수령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지금의 현실에서 북한 체제전환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라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실현하고 대북 개입정책(engagement)의 지속으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와 북한의 흡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함은 바로 이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갑식.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정치체제변화.” 윤대규 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파주: 한울, 2008.
- 김석진. 『중국 베트남 개혁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재검토』. 서울: 산업연구원, 2008.
- 박제훈. “북한경제의 개혁과 체제전환: 이행경제학적 접근.” 『비교경제연구』, 16권 1호 (2009).
-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서울: 해남, 2004.
- 서경교. “동유럽의 민주화: 비자유민주주의의 확산?” 이상환·김용진 외, 『동유럽의 민주화』.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 양문수. “체제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성과.” 윤대규 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파주: 한울, 2008.
-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파주: 한울, 2010.
- 양운철. 『북한 경제체제이행의 비교연구』. 파주: 한울, 2006.
- 이무철. “조정기제의 변화와 국가의 역할.” 윤대규 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 한울, 2008.
- 이석.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나카가네 카즈 지음. 이일영·양문수 옮김. 『중국경제발전론』. 서울: 나남, 2001.
- 린이뚜 외 지음. 한동훈·이준엽 옮김.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 서울: 백산서당, 2001.
- 전태국.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독일통일과 동구변혁』. 파주: 한울, 1998.
- 정영태 외.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정형근. 『체제전환의 경제학』. 서울: 청암미디어, 2001.
- 정홍모. 『체제전환기의 동유럽 국가 연구: 1989년 혁명에서 체제전환으로』. 서울: 오름, 2001.
- 진승권. 『동유럽 탈사회주의 체제개혁의 정치경제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최봉대. “사회주의 체제전환 방식의 비교연구.” 윤대규 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파주: 한울, 2008.

하상식. “경제체제 개혁과 정치적 변화: 북한의 개혁전망.” 『국제정치논총』, 37집 2호 (1997).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논문, 2009.

A.G. Walder, ed. *China's Transitional Econom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David Stark, “Path Dependence and Privatization Strategies in East Central Europe.”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Vol.6, No.1 (1992).

Fareed Zakaria, *The Future of Freedom: Illiberal Democracy at Home and Abroa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3.

Frank Bonker, Klaus Miller and Andreas Pickel, “Cross-Disciplinary Approaches to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Context and Agenda,” Frank Bonker et al, eds,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and the Social Science: Cross-Disciplinary Approache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2.

Ivan Szelenyi and Balazs Szelenyi, “Why Socialism Failed: Toward a Theory of System Breakdown-Causes of Disintegration of East Europe State Socialism,” *Theory and Society*, Vol.23 (1994).

Ivan Szelenyi, “A Theory of Transitions,” *Modern China*, Vol.34, No.1 (2008).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Javier Corrales, “The Gatekeeper State: Limited Economic Reforms and Regime Survival in Cuba, 1989-2002,”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39, No.2 (June, 2004).

John Mcmillan, “What Can North Korea Learn from China's Market Reform,” in Doowon Lee ed., *The System Transformation of Transition Economies: Europe, Asia and North Kore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7.

Marifeli Perez-Stable, “Caught in a Contradiction: Cuban Socialism between Mobilization and Normalization,” *Comparative Politics*, vol.32, no.1 (October, 1999).

Naughton,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Sujian Guo, "Economic Transition in China and Vietnam: a Comparative Perspective,"
Asian Profile, Vol.32, No.5 (2004).
- World Bank, *Transition-The First Ten Years: Analysis and Lessons for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2.

Abstract

Socialist Transition and Changes in North Korea: From a
Perspective of Comparative Socialism

Kim, Keun-sik(Kyungnam University)

This paper will analyze the theory of socialist transition under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socialism and examine initial conditions and path dependence of regime change, which determine the form and method of transi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e prospects for the future possibility of regime change and its method will be explored as well as conditions and tasks necessary to accomplish this will be suggested. If North Korea decides to pursue regime transition, it is most likely to take the Asian model of “gradual systemic reform” or regime reform centered on “party-state system” that will not involve any major change from its current structure. Under the explanation of gradualism, North’s regime change will resemble relatively that of “Cuban model” than that of China or Vietnam. However, considering the unique initial conditions and historical factors, North Korea’s regime change will not resemble a specific case type but rather a distinctive “North Korean approach” will be taken. The initial conditions of North Korea that is preventing regime change are Suryong System that governs the domestic situation and external factors of US-DPRK and inter-Korean relations.

Keywords: Socialist transition, gradualism and radicalism, initial conditions, path dependence, Suryong System